

완주군, '3000억 시대' 예고

신성장동력·핵심선도사업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완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2018년 국가예산 3000억원 시대를 열 계획이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민선6기 국비 3000억원 시대를 목표로 발 빠르게 준비, 지난해 7월 국가예산 발굴 활동을 조기 착수했다.

특히 신규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개최, 국가예산 확보 합동워크숍 추진, 국가예산서 전수분석 연구용역 실시 등 입체적 행보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차에 걸친 발굴 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2018년 국가예산 발굴 규모는

총 115건, 총 사업비 9527억원(국비 6291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발굴돼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완주군 식품안전센터 설치, 만경강 수난구조 훈련센터 조성, 사회적경제 전문교육원 유치, 화산~운주(국도17호)간 시설개량사업, 대한민국 호국 체험센터 조성 등이다.

이 사업들은 15만 으뜸가족도시 완주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및 지역 발전을 이끌 선도 사업들로 평가된다.

군은 발굴된 국가예산사업들이 최종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타 시군 사업분석을 위한 정부예산서 전수분석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 및 중앙부처 일제출장, 중앙부처 항우 간담회,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한 톨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민선6기 들어 국가예산 2000억원 시대(2015년 2095억원)를 열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2648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농민들 월급 받는다

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눈길' 농산물 출하약정 체결 월별 지급

무주군이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소득의 수확기 편중을 해소해 농가들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해 약정 금액의 50%(30~150만 원)를 월별(4~9월)로 지급(매달 20일)받는 제도다. 수매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주고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자보전금과 대행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을 통해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농사를 짓는 200농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담당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벼 품목만 한정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발자본을 포함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월급 받는 농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불안한 영농수입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많은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월급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소재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면서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월급은 4월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성공개최 준비 '착착'

9월 7~9일까지 3일간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마을만들기전국대회는 전국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마을지도자,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 공유 및 토론, 마을탐방 등이 이루어지는 학습형 축제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군청 마을만들기팀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장과 담당자 등 20여명으로 TF팀을 구성한 후 대회 준비를 위한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TF팀 워크숍이 진안군 황금체육휴양마을에서 진행됐다.

군은 이번 대회의 의미를 살려 10년간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나아가갈 10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비전과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와 수원시, 진안군 등 55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대회 기간에 개최해 전국 단위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향로 군수는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 이미지 강화는 물론 외부 방문객 증대, 도농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대회준비를 해 나갔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 고급화,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군, 이달 말까지 수립

장수군은 '장수한우 육성 10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군은 외국과의 FTA 계약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한우 가격 하락과 부정청탁 및 급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한우 산업의 전반적인 분석,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최우수 장수한우 브랜드 확보를 위해 용역비 4,000만원을 투자, 제도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수한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축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정책 방향 설정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육종계량, 브랜드 개발 및 유통체계 확

립으로 6차 산업과 연계 가공 산업 활성화와 방한 등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말 기준 장수한우 사육 현황은 905농가에 2만9,63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우량 암소 1만두 육성으로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총력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정 주민설명회 운영

장수군은 7일 군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 이해와 소통을 위한 '2017 군정 주민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날 천천면과 계북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금)까지 7개 읍·면 순방할 최용득 군수는 유기홍 군의회 의장, 군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각 마을 대표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명회 첫날인 7일 천천면 경로당을 방문한 최용득 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설명회장에서는 이장, 기관·단체장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원성 사업에 관한 질문과 건

의를 받는 한편, 큰 틀에서의 장수군 발전방향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설명·보고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무상보급

18억원 경영비 절감효과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1,000여 농가에 11품목 910톤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제제'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 보급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제제는 생육촉진미생물제제, 병발생 억제미생물제제, 입상형미생물제제, 곰팡이방제제와 유기농업자재(팽창수, 순환이, 미생이) 등 7품목 370톤이 보급된다. 또한, 축산용제제로는 미생물보조사료(장수바이오1호), 자우실자역제제(장수바이오2호), 악취저감제와 사일리지제작용 등 4품목 540톤이 보급된다. 군은 2003년부터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배양, 희망농가에 보급해왔으며,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촉진과 가



축 사료효율향상 및 축산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유용미생물제제는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 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급되며, 이와 같이 친환경 유용미생물제제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연간 18억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350-5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제작 보급 인기

진안군은 도로명주소가 포함된 우편함을 제작 보급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진안고원의 청정 이미지 홍보를 위해 8,700여 세대에 우편함 보급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귀농·귀촌 세대, 신규 전입세대 등에도 우편함을 보급한다.

우편함에는 새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사서사람 명을 기재하여 우편물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편함 보급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함 신규 신청과 설치 누락 세대, 기재사항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063-430-2246, 2359)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조직위-원광보건대, 자원봉사 업무협약 체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조직위(사무총장 이종석)-원광보건대학교(부총장 이학준)와 7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자원봉사 참여 협약식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도내 학생들에게 국제행사 체험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육성 기반 마련과 더불어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전라북도에서 20년만에 열리는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결과이다.

이번 협약으로 원광보건대학교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을 비롯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을 파견하여 세계 태권도인들과 다양한 체험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대회 조직위는 우수한 대학생 인력지원으로 주요행사 및 시상식 등 대회장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대회기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조직위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2017 무

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결과 광주빛고을외국어부서(40여명), 항공서비스학과(20명) 학생을 비롯하여 500명 모집계획에 720여명이 신청했다.

이들 중 11일부터는 전복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대전에서 선발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500명의 봉사자에게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우수한 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통영, 수송, 안내 등 18개 분야에 배치하여 선수단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이종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원광보건대학교의 자원봉사 인력지원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국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의 성패여부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대회 경기는 물론 개폐막식, 문화행사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용기 판매시설로 지원 도와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재활교육과 전문용기를 생산·판매, 체험하는 시설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근로활동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종사자 5명과 참여근로자 장애인 25명으로 구성, 신체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정해서 2시간부터 종일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돈협회 원주지부, 한돈나눔 행사

(사)대한한돈협회 원주지부(김정기 지부장)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나누기 위한 돈육 700kg(400만원 상당)을 완주군에 기탁했다.

7일 전달식에는 박성일 원주군수를 비롯, 김정기 한돈협회원주지부장, 이춘기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한돈협회 원주지부는 해마다 완주군에 돈육과 성금 등을 기부해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20여명 완주 이서면서 복지투어 실시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타 지자체 및 기관에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7일 송실대학교 학부생 20여명은 이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허브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을 청취했다.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맞춤형복지팀을 꾸려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 605건의 대상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카드 한 장으로 전북관광 OK

무주군, 전북투어패스 홍보 만전

무주군이 전북 투어패스 출시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투어패스는 카드 하나로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는 것으로, 군에 따르면 반딧불소식지와 우정일림이를 통해, 그리고 이장들의 등각중 회의 시 전북 투어패스 카드를 알리고 있으며, 관광안내 지도에 이용 시설을 표기하고 특별합인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 투어패스는 기간별로 1일 권과 2일 권, 3일 권, 한우마을전용권, 수요자맞춤형(선택형)이 있으며 종류별로는 관광형(관광시설 및 특별합인)과 교통형(관광형+대중교통 or 공영주차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투어패스로 전북 관광을 하면 14개 시·군 주요관광시설과 119안전체험관, 종합사격장, 작은영화관 등 60여 개 유료시설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내버스를 무료(5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내 26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개소 당 2시간 이내)할 수 있으며 600여 개 특별합

인 시설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구입은 투어패스 홈페이지와 쿠팡, 인터파크, 옥션,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 도내 주요 관광시설과 관광안내소 등 43개소에서 가능하며 무주군에서는 2월 15일부터 터미널 앞 관광안내소와 무주 IC 관광안내소와 무주 IC 관광안내소, 공충박물관 종합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8,300원~3만9,900원까지 다양하다.

무주군 관내 자유관광 이용시설은 반디랜드 공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머투와인동굴, 산골영화관이며 특별한인 가맹점(패스 구입 장소에서 안내-가이드북 & 쿠폰제공)은 맛 집 32개소와 숙박업소 13개소, 카페 1개소, 레저시설 8개소, 체험시설 7개소 등이다.

문화관광과 김영광 관광육성 담당은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부담없이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북투어패스에 감동하고 전북관광에 만족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